

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맑음

생애 첫 출장을 다녀온 지 처음 출근하는 날. 주말을 내리 쉬었는데도 피곤하다. 출장동안 너무 힘들어서 전 남자친구에게 카톡과 문자를 남겼는데 받아주지 않았다.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주말동안 계속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보냈다. 집에서 고양이 냄새를 맡고 끌어안고 자는 게 요즘 내 삶의 전부인 것 같다.

출장 보고서를 써야한다. 출장 때, 내 교육을 맡았던 선배(그렇지만 교육할 시간 따위 있을리가 없고 나는 출장 영혼없이 서 있었던 게 전부였다.)가 나에게 '여기 시스템 구성이 어떻더라?' 하고 질문을 내던졌을때 온 힘을 다해 짜증을 냈었다. 모르겠다고..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지. 저 선배는 6년차인데. 6년을 참으면 저렇게 되나. 하지만 아무리 돈을 잘한다고 해도 6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는 있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내 생각이다.

매니저는 굉장히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분이다. 문장 하나 하나, 단어 선택 하나 하나... 나는 걱정을 사서 하는 타입이라서 벌써부터 보고서를 수정할 생각에 숨이 막힌다.

작년에 입원했던 일이 생각난다. 내 몸이 아픈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비상약이나 삼키고, 남자친구가 응급실에 가야한다는 것도 참고 참아서 결국은 대학병원에 까지 입원했었다. 그게 딱 1년전의 일이다. 그 때에는 이 회사에도 이 나라에도 미련이 없으면서 남자친구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았다. 그래도 그 때가 행복했다.

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.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. 그러려면 너를 가꿔서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라고 하더라.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걸까? 그렇다고 믿었던 너는 네 감정이 여기까지라며 나를 내쳤다. 힘들어. 근데 이 소리도 벌써 3개월째다. 이런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는 또 다시 3월 12일의 스타벅스 앞길로 돌아간다. 내가 니 소매를 붙잡고 너는 이제 질렀다는 표정을 하고선 답을 수도 없는 잔인한 말들을 내뱉던 그 날.

어서 보고서나 쓰자. 신입이라는 핑계로 보고서를 느즈막하게 써서 사수에게 내밀었다. 결국 수정을 거듭해 정식퇴근보다 두 시간이나 늦은 8시가 넘어서야 퇴근이다. 사수 앞에서 내 표정은 아주 가관이었을거다. 나는 직장인 생활이 햇수로는 4년은 된 것 같은데도 잔업이며 야근이 왜 이리 싫은지. 얼른 집에가서 밥을 먹고 자야지.

저녁으로는 크림 파스타가 먹고 싶었다. 짙은 크림이면서 썩은 버섯과 베이컨이 적절히 들어있어 치즈를 뿌려먹으면 금상첨화인 크림파스타. 편의점에서 크림파스타를 사고 옆 가게에서 포장초밥을 샀다. 크림파스타는 대 실패. 초밥도 4개 중에 2개만 그러저럭. 휴... 맘에 안든다.

침대에 누워서 카톡이나 하다가 밤이 늦었길래 틀어댄던 미드도 끄고 불도 꺼버렸다. 아직은 따뜻하게 좋아서 전기장판을 키고 이불을 덮었다. 잠이 드려고 하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. 돌아왔지? 정말 중요한 일 있으면 그냥 전화해. 바보야.. 바보야.. 바보야? 그런 말은 애정어린 상황에서나 하는 거라고. 한국어를 좀 제대로 가르쳐줄걸 그랬다. 적어도 내 '바보야'는 그래. 그런 한국어는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때려쳐줬으면 좋겠다. 노곤하던 뇌에 갑자기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 들다가 이내 힘이 빠져 답장은 못할것 같았다. 무시하고 자야지. 그러던 찰나에 전화가 온다. 또 받아버렸다. 단순한 년..

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먹고 집에 온 모양이었다. 그러다가 자기가 무시했던 카톡이 생각났겠지. 왜 나에게만 주도권이 없는 걸까? 나도 그를 무시한 적이 있다. 그럴때 지독하게도 왜? (답장을 안해) 같은 메시지가 연속으로 오기도 했다. 무시하다가도 받아주는 나는 정말 자제력이 없는 걸까. 니가 뭐라고 내 걱정을 해, 니가 뭐라고 내가 끊었는데 일부러 다시 걸어서 내 고양이 걱정을 해.. 재수없는 새끼. 꺼져버려! 하면서도 나는 또 니 연락을 기다리겠지. 내일은 프랑스로 보낼 친구 생일 선물이나 사야겠다. 이제는 사람답게 밖에 좀 나가야지...